



## 골프 레프리 스트레스 요인에 관한 연구

오세숙<sup>1</sup>

<sup>1</sup>경기대학교

### A Study on the Stress Factor of Golf Referee

Oh, Sae-Sook<sup>1</sup>

<sup>1</sup>Kyonggi University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tress factors of the golf referee through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The participants of the study were 6 golf referees of the Korea Golf Association. Snowball sampling was used for the selection method. This study collected key data through in-depth interview. All interview data were structured so that textualization could be structured in the process of recording and transferring.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The following are the stress factors of the golf referee during the competition: First, difficulties and distrust in ruling, second, delay play, third, course complaints were drawn. And the stress felt in relation to the player was first, the unpleasant speech and behavior of the player, and second, the lack of understanding of the player's rules. These results gave us a detailed understanding of the stress factors of the golf referee. It is also expected to provide basic data on the stress coping and management of referee stress for high-quality golf operations.

**Key words :** golf, referee, stress, qualitative research

주요어 : 골프, 레프리, 스트레스, 질적 연구

본 연구는 2017학년도 경기대학교 학술연구비(일반연구과제)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Oh, Sae-Sook

Kyonggi University, 154-42, Gwanggyosan-Ro, Yeongtong-Gu, Suwon-Si, Gyeonggi-Do, Korea

Tel: [REDACTED], Fax:+82-31-249-9080, E-mail: sxo139@gmail.com

Received: August, 6, 2019 Revised: August, 28, 2019 Accepted: September, 19, 2019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스포츠 현장에서 요구되는 심판의 역량과 전문성은 매우 높아지고 있다. 스포츠 경기에서 심판은 신속한 의사결정, 원활한 경기운영, 관중이나 시설물 등 경기 외적 요소에 대한 주의, 경기 중 발생하는 갈등 해결 등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한다(Tuero, Tabemero, Marquez, & Guillen, 2002). 이러한 심판의 역할수행은 신체적 부담감(장재훈, 허선, 2014; Houssein, Lopes, Fagnoni, Ahmaidi, & Yonis, Lepretre, 2016)과 선수의 부적절한 언행(장연환, 박정근, 2016), 부정청탁(권기남, 권기식, 이정래, 2011) 등이 더해지면서 상당한 수준의 스트레스를 발생시킨다. 또한 스포츠 심판 스트레스는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판정 실책, 보상 심리, 실패에 대한 두려움, 경기 통제력 염려, 준비부족에 대한 걱정, 외부의 심판 판정 능력 평가절하 걱정 등과 같은 심리적 부담감이 원인이 된다(박해용, 2003, 오세숙, 김종순, 설수영, 2012).

이러한 심판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종목에서 진행되고 있다. 유진, 박해용(2001)의 축구심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판정향의, 판정 실책, 부정적 피드백, 불합리한 배정, 신체적·정신적 부담, 심판 매수, 가정생활 불충실 등이 심판 스트레스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오세숙 외(2012)는 유도 심판의 스트레스 요인을 판정실책에 대한 두려움, 판정향의, 편파판정 오해, 동료심판 갈등, 마이너스 경비, 생소한 선수권 배정, 유도장 운영 병행 등을 요인으로 추출한 바 있다. 댄스스포츠 심판의 스트레스 원인을 연구한 이영란, 정진오(2011)는 판정향의 및 실책, 심판언행 및 배정, 정신적 부담, 심판 간의 부정적 피드백, 그리고 기타로 심판매수, 신체적 부담, 가정 및 경제적 어려움 등을 확인하였다. 이외에도 럭비심판(박인영, 지정현, 박승하, 2014; MacMahon, & Ste-Marie,

2002), 체조심판(한경임, 윤대현, 2009), 핸드볼 심판(Souchon, Coulomb-Cabagno, Traclet, & Rasclé, 2004), 태권도심판(안근아, 이재봉, 이석귀, 김서경, 2013), 농구심판(허진영, 2016; Rainey, & Winterich, 1995) 등 다양한 종목의 심판 스트레스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구는 종목의 특성을 고려한 심판 스트레스 요인을 밝히고,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음을 지적하였고, 심판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및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손원일, 황승현 그리고 송용관(2018)은 11개 종목(예; 배구, 축구, 레슬링 등)의 심판을 대상으로 심판판정 효능감 척도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스포츠심판 스트레스척도와 상관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심판판정 기술과 기능에 대해 자신이 느끼는 자신감인 심판판정 효능감 요인은 규칙에 대한 이해, 심판의 원리, 역할 숙지에 대한 경기지식, 명확하고 빠른 판단과 확신에 대한 의사결정, 공정한 판단을 위한 선수, 관중, 코치의 외부압력 그리고 선수, 코치, 타심판, 경기진행자와의 원활한 의사소통 등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요인은 심판 스트레스와 부적상관관계가 있었다.

위와 같은 연구를 종합해보면, 종목 특성에 맞추어 스포츠 경기심판들의 역량과 자질에 대한 개념과 측정이 필요하고(한국스포츠개발원, 2017), 역량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스트레스 관리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골프는 어떤 종목 특성을 가지는지, 골프 심판 즉, 레프리(referee: 위원회로부터 사실상의 문제를 결정하고 규칙을 적용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에게 경기 중 발생하는 스트레스는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골프 경기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축구경기의 주심은 경기 중 경기장 장악을 위한 통솔력과 명확하고 신속한 판단이 우선시 되는 많은 역량이 필요하다(Federation Internationale de Football Association; FIFA, 2010). 한편 골프

경기는 선수 스스로 그리고 함께 플레이하는 다른 선수가 주체적으로 양심에 따라 경기를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스포츠에 비해 심판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적다(신준수, 윤희기, 2017). 특히 골프는 심판 없는 양식의 신사경기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대한체육회, 1993), 선수는 부정행위 적발 시 받게 될 비윤리성과 부정적 이미지 그리고 페널티로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는 부담감이 크다(이승훈, 이현우, 오상훈, 2014). 또한 골프는 경기장과 선수수준에 따라 로컬룰이 적용되며, 일반적으로 스트로크 플레이(stroke play)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심판은 매년 다른 로컬룰에 따른 코스 운영과 제정에 정확성을 높여야 하는 반면, 경기전체를 통솔하고 때 순간 신속한 판정 결정을 내려야 하는 심리적, 신체적 부담은 다른 종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 이러한 골프 경기의 특성은 골프 레프리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배제할 수 없으며, 다른 종목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골프 레프리들을 대상으로 레프리의 스트레스 요인을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골프 경기의 특성에 따른 레프리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고, 구체적인 스트레스 요인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는 골프 레프리 스트레스의 대처와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참여자

이 연구의 연구참여자는 남자 골프 레프리 6명이다. 연구참여자 선정에서는 레프리 활동으로 나타나는 스트레스 요인의 다양한 도출을 위해 연령, 골프경력, 레프리 경력 등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단, 레프리 활동에 대해 잘 설명해주

고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정보 전달이 원활한 사람으로 선정하였다.

이 연구참여자의 표집은 골프 레프리로 활동하는 지인을 통해 연구목적에 부합되는 레프리를 소개받았으며, 그 사람과의 면담을 통해 또 다른 면담 대상자를 소개받는 방식의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을 사용하였다. 눈덩이 표집은 이미 선택한 자료 수집 단위에서 파생된 새로운 자료 수집 단위를 선택하는 것으로 다음에 면담할 사람이 연구와 관련된 부가적 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 사용한다(박지연, 이숙향, 김남희, 2013).

연구참여자 6명의 평균연령은 59.67세이며, 골프경력은 모두 25년 이상이다. 레프리로 활동한 경력은 최소 6년, 최대 20년까지로 나타났다.

표 1. 연구참여자

번호	참여자	연령	골프 경력	레프리 경력
1	A	55	27	10
2	B	66	29	20
3	C	60	28	15
4	D	56	27	15
5	E	61	32	18
6	F	60	26	6

### 2. 자료수집

이 연구는 심층면담을 통해 주요 자료를 수집하였다. 우선 구조화된 면담지를 작성하기 위해 타 종목의 심판 스트레스와 골프 경기 등에 관한 자료를 세부적이고 다양하게 수집하였다. 우선 일반적인 심판 스트레스에 관한 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해 면담을 실시 한 후, 이후 질적 면담 즉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심층면담에서는 골프 레프리 활동과 스트레스에 관한 질문 목록 없이 연구참여자가 제시한 맥락과 상황에 따라 대화를 주고받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박지연, 이숙향, 김남희 2013). 특히 이런 절차는 연구참여자가 연구자에게 골프 룰의 특성에 대해 얘기하고, 골프 제정의 어려움에 대해 설명하는 과

정에서 골프 레프리의 스트레스 요인이 명확해지는 과정을 거쳤다.

면담은 연구참여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를 정하였으며, 1회 면담 시 1시간에서 2시간씩 2-3회 이루어졌다. 심층면담자료는 모두 녹음과 전사하였으며, 분석하는 과정에서 내용의 확인이 필요하거나 추가적인 정보가 요구될 때는 전화나 e-mail을 통해 확인하였다.

### 3. 자료분석 및 타당성

모든 면담자료는 녹음하여 전사하는 과정에서 텍스트화하여 체계적으로 구조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우선 모든 텍스트를 작은 조각이나 부분으로 쪼개는 절차와 재배열, 재결합을 반복함으로써 자료 전반의 일관성 있는 어휘와 맥락을 수집하였다. 이를 통해 자료를 해석하고 결론을 내리고자 하였다. 전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개념을 도출하고 영역을 분류하여 범주화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의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참여자의 타당도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연구참여자가 자기 보고한 행동과 관점에 대해 해석상의 오류가 없는지 피드백을 받았다. 또한 골프전문 교수 1명과 질적 연구 전문 박사 2명을 통해 동료검증을 실시하였다.

## Ⅲ. 연구결과

골프 레프리 스트레스 요인은 크게 경기운영과 선수와의 관계 측면으로 나타났다. 우선 경기운영 면에서 첫째, 룰 제정에 대한 어려움과 불신, 둘째, 지연 플레이, 셋째, 코스 불만이 도출되었으며, 선수와의 관계 측면에서는 첫째, 선수의 불쾌한 언행, 둘째, 선수의 룰 이해 부족으로 나타났다.

## 1. 경기운영에 관한 스트레스 요인

### 1) 룰 제정에 대한 어려움과 불신

레프리는 판정에 대한 효능감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는 선수 및 코치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고, 실제 반칙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의 수준도 낮추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손원일, 황승현, 송용관, 2018). 레프리에게 경기 판정은 스트레스 요인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도 경기운영에 관한 스트레스 요인으로 룰 제정에 대한 어려움과 그에 따른 불신이 도출되었다.

골프 레프리들은 종목의 특성 상 경기장이 넓고, 코스 환경이 다양해 적용되는 룰이 광범위하고 상황마다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룰 제정의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경기 중 룰 가이드북을 꺼내 확인하는 절차를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상황마다의 판정이 매우 복잡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다보니 선수나 관계자들의 룰 제정에 대한 불신이 발생할 것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또한 선수에 대한 사적인 감정이나 관계에 의한 구제판정 오해가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했다. 실제로는 구제판정을 정확히 하였으나 외부의 오해와 불신이 따를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 요인으로 판단된다.

“사실 레프리라는게 제정을 철저히 연구하는게 필요하지...그런데 사람이니까 오판의 가능성이 없지는 않아..만약 그렇게 되면 스트레스 받지. 그럴 수 있다는 것 때문인지 공정하게 경기운영을 했는데도 판정에 불만을 보인다거나 결과를 수용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니까.” <B>

“애매한 상황에서 판정을 내렸는데 이것이 선수에게 불이익을 주게 되면 스트레스 쌓이죠. 게다가 그 선수가 이것을 어필하게 되면...어휴...스트레스가...” <C>

“일관성있고 정직한 관정으로 원활한 경기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개인적인 관계나 사사로운 인간관계로 판정해서는 안 되는거죠. 공을 보고 판정을 해야지... 그걸 선수나 관계자가 믿어야 하는데 내 경우는 아니지만 뒷말들이 가끔 생기기도 해요.” <D>

“레프리는 선수들을 더 성숙한 사람이 되게 도와주고 안내하는 일을 해요. 그래서 전문성이 제일 중요하죠. 선수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차단하고 실력을 발휘하도록 하려면 내가 룰을 잘 알고 정확한 판정을 내려야 되는거죠. 그게 참 어려워.....” <E>

“패널티 만능주의가 능사가 아니에요... 룰에 대한 정확한 숙지, 전문지식을 갖추어야지 공정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F>

## 2) 지연 플레이

골프 레프리들은 경기를 운영할 때 경기 속도에 아주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수가 지연 플레이를 할 경우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골프 경기의 특성 상 스트로크 플레이 방식이기 때문에 특정 홀에서 지연되면 경기 일정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골프 룰도 경기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변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샷 시간을 40초 이내로 줄이거나, 드롭 방법을 무릎높이에서 떨어뜨리게 하는 등이 이에 속한다(권기범, 2018). 따라서 골프 레프리들은 경기운영 시 발생하는 지연 플레이에 민감하며, 지연 플레이 발생 시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일부러 경기 진행을 느리게 빼는 선수가 있어요. 아주 신경 쓰이죠.” <A>

“최근 골프 경기의 트렌드는 플레이 속도 향상인데, 선수들이 이걸 주저하지 못하고 지연시키다보면 문제 있지.” <B>

“경기 속도에 있어서 불성실한 선수들이 꼭 있어요. 지연플레이하는 요주의 인물이 있다가요.” <C>

“제한된 시간 내 원활하고 유연한 경기진행자의 역할이 레프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을 잘 이끌어 경기 운영하기가 참 쉽지가 않죠.” <E>

### 3) 코스 불만 표시

연구참여자들은 경기 운영 시 로컬룰을 정하기 위해 코스를 점검하는 등 사전 준비를 해야 한다. 또한 매 경기 전 코스를 돌며 정비해야 하는 등 경기 준비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 종목이다. 따라서 이에 대해 선수가 불만을 표시할 때 스트레스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골프 선수들은 골프장 상황적 스트레스에서 날씨가 그립자, 경기장 상태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기 때문에(황재욱, 육동원, 김성훈, 권승민, 신정택, 2013), 골프 레프리들에게 표시하는 코스에 대한 불만이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레프리 역할 중에 경기 코스를 세팅하는 역할도 있는데, 여기에 불만을 표명하는 선수들이 있지. 아무래도 코스에 따라 성적에 차이가 생기니까 민감한 부분이야...아주 신경을 많이 써야하거든.” <B>

“상시 코스 상태를 점검해야 경기가 잘 치러지는데... 선수들이 코스에 불만을 얘기하면 안되니까... 이걸 우리가 할 일이고, 선수한테는 중요한 일이죠. 레프리들이 잘 해야죠 뭐.....” <D>

## 2. 선수에 관한 스트레스 요인

### 1) 선수의 불쾌한 언행

상대선수를 존중하고 동료들을 배려하는 스포츠맨십은 경기 시 반드시 지켜야할 바른 예의,

인격 존중, 배려 등의 덕목일 뿐만 아니라, 경기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신준수, 윤희기, 2017). 특히 골프는 선수들의 대인관계 스트레스 요인에서 동반자 플레이 스타일이 매우 중요하며,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예의를 중시하는 스포츠다(황재욱, 김성훈, 송원익, 2015). 경기시 레프리와 관계자 그리고 상대 선수 간에 지켜야 할 에티켓은 골프경기에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골프 레프리들은 이를 지키지 않는 선수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연구참여자들은 레프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보람을 느끼는 레프리로의 사회적 인정(안창규, 2017) 정도가 높기 때문에, 선수의 불쾌한 언행을 민감하게 받아들이며 스트레스 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골프경기 규칙에선 상대방을 배려하는게 원칙이죠. 레프리든 진행요원이든 예외는 없어요. 그런데 선수가 심하게 어필을 한다? 그런 행동이 보기 좋지는 않겠죠.” <A>

“선수들이 레프리를 속이려들 때가 있는데 그러면 아주 기분이 나빠요... 게다가 감정적으로 대응하면서 비도덕적인 언행을 하거나 할 때는 정말 화가 많이 나죠...” <D>

“레프리들은 명확한 판정을 내리고 선수들이 자신의 기량을 잘 발휘할 때 자부심을 느껴요. 룰에 입각한 판정을 내렸는데도 경기결과에만 집착해서 거짓말을 하거나, 나를 불편하게 생각하고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F>

## 2) 선수의 룰 이해 부족

골프 레프리들은 선수들이 룰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것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예를 들어, 구제구역과 허용 범위를 지레 짐작하고 볼을 집어 올린 선수 때문에 벌타를 부가할 것인지 아닌지 판정할 때 선수가 룰

을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또는 규칙을 모르면서 무조건 구제받으려고 억지 부리는 경우도 있어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한다. 일반적으로 골프 선수들은 경기력 향상을 위한 기술 수행능력과 심리적 통제력에 관심이 높지만(강승우, 김영재, 2019), 변화하는 규칙에 대한 학습이 부족할 수 있고, 코스 환경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룰 제정에 이해가 부족할 수 있다.

“선수도 스스로 규칙을 익혀야 할 의무가 있어. 근데 선수가 규칙을 전혀 습득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있다니까. 이런 경우는 경기결과만을 생각하면서 부적합한 이유로 구제를 받으려고 난리야.” <B>

“선수가 규칙을 숙지하지 못한 경우도 가끔 있어요. 아주 황당스럽죠... 이런 경우 내가 심지어 벌타를 막아줄 때도 있는데 이걸 선수자질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교육을 다시 해야 되요.” <E>

“선수들이 룰을 알지도 못하면서 제정에 불만이 많을 때가 있어요. 선수들이 편안한 제정을 받을 때는 괜찮은데 적합한 판정이었는데도 이해를 못할 때는 갑갑하죠.” <F>

## IV. 논의

최근 스포츠 현장에서는 경기 중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경우를 판정해야 하는 심판들의 스트레스가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경기의 승패와 관련이 있기에 심판의 판정은 언제나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심판 판정문제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스트레스는 경기하는 선수와 비교해도 결코 적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경기 중 나타날 수 있는 심판 스트레스 원인과 대처요인에 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며, 특히 골프의 경우 매년 다른 로컬룰에 따른 코스 운영과 제정에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에

서 다른 스포츠 종목의 심판과는 상이한 역할을 수행하므로 심판 스트레스와 대처 요인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골프 레프리들을 대상으로 경기 중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들에 의해 나타날 수 있는 레프리 스트레스 요인을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골프 레프리 스트레스의 대처와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경기운영에 관한 스트레스 요인으로는 첫째, 룰 제정에 대한 어려움과 불신이 나타났고 둘째, 지연 플레이, 셋째, 코스 불만이 도출되었다. 골프는 경기장과 선수수준에 따라 로컬룰이 적용되며, 레프리는 매번 다른 로컬룰에 따른 코스 운영과 제정에 정확성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골프 종목 특성상 다양하고 복잡한 룰이 적용되기 때문에 경기 상황에 일어날 수 있는 각 종 변수에 경기 내용을 명확하게 판단하기 위해 느끼는 레프리의 심리적 스트레스는 타 스포츠 종목에 비해 더욱 클 것이라 생각된다. 이영란, 정진오(2011)의 연구에서 선수와 심판간의 상호작용에서 선수가 기대한 판정결과와 실제 판정결과가 불일치됨으로써 나타나는 판정항의는 심판들에게 많은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나타나 이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경기운영과의 인터뷰 결과에서 도출되었듯 정확한 룰 제정을 위해서는 먼저 레프리들의 골프 경기 룰에 대한 이해가 뒷받침 되어야 룰에 입각한 정확한 판정을 내려 선수들의 판정 불만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이에 레프리들의 룰 제정에 대한 교육 세미나를 체계적으로 개최하여 선수들로 하여금 레프리들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 또한 레프리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중요한 방법이라 생각한다.

또한 골프 경기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레프리 스트레스 요인으로 선수들의 지연플레이와 코

스 불만족 등과 같은 특징이 나타났다. 경기를 운영할 때 경기 속도는 모든 선수에게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레프리는 경기 중 선수가 지연 플레이를 할 경우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다른 종목과 달리 경기 코스를 운영위원들이 직접 세팅하기 때문에 코스의 난이도 및 상태에 대해 선수가 불만을 나타내는 경우가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Myers, Feltz, Guillen과 Dithurbide(2012)는 높은 수준의 경기 또는 환경적 요소들이 안정적 일수록 심판판정에 있어서 높은 효능감을 느낀다고 하였다. 골프 경기는 선수 자신이 주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높은 경기수준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수 스스로가 페어플레이 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선수들에게 정확한 경기 룰 및 매너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레프리에게 발생하는 선수 간 스트레스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선수에 관한 스트레스 요인의 관계 측면에서는 세부적인 요인으로 첫째, 선수의 불쾌한 언행, 둘째, 선수의 룰 이해 부족으로 도출되었다. 스포츠 상황에서 심판의 판정은 경기의 승패와 관련하여 언제나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된다. 특히 골프는 심리요인에 의해 경기력이 결정되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정서는 골프선수들의 경기진행에 악영향을 가지고 온다(최봉암, 2017). 따라서 경기 진행 중 심판이 내리는 판정이 선수가 생각하는 판정 결과와 다르면 부정적인 정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석혁기, 남정훈, 2018), 이에 대한 부담감이 레프리의 스트레스 요인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레프리들은 경기를 진행함에 있어서 선수들이 충분한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경기 규칙에 의거하여 공정한 판정을 하고, 동시에 선수들의 경기 중 성숙한 시합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선수를 대상으로 하는 경기 룰 교육을 실시하여 선수의 안정된 플레이와 레

프리의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 V. 결론

이 연구는 스포츠 현장에서 요구되는 심판의 역량과 전문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골프 경기의 특성에 따른 심판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고, 구체적인 스트레스 요인을 도출하여 골프 레프리 스트레스의 대처와 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사)대한골프협회 레프리와의 그 사람과의 면담을 통해 또 다른 면담 대상자를 소개받는 방식의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을 사용하여 6명의 레프리를 소개받아 조사를 진행하였다. 모든 면담자료는 녹음하여 전사하는 과정에서 텍스트화하여 체계적으로 구조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우선 모든 텍스트를 작은 조각이나 부분으로 쪼개는 절차와 재배열, 재결합을 반복함으로써 자료 전반의 일관성 있는 어휘와 맥락을 수집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경기운영에 관한 스트레스 요인으로는 룰 제정에 대한 어려움과 불신이 나타났고, 지연 플레이와 코스 불만 등 세 가지 요인이 도출되었다. 이상의 결과는 골프 레프리들의 룰 제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연구를 통해 시험 중 일어날 수 있는 스트레스 요인을 줄이는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골프협회 차원에서 레프리의 공정하고 투명한 판정 행위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함과 동시에, 권한부여 및 레프리의 자긍심 함양에 필요한 환경 개선을 통해 레프리들의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두 번째로 선수에 관한 스트레스 요인의 관계 측면에서는 세부적인 요인으로 첫째, 선수의 불쾌한 언행, 둘째, 선수의 룰 이해 부족으로 도출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골프 경기 특성 상 다양하고 복잡한 경기 상황에서 레프리의 룰에 대한 정확한 인지로 공정한 판정과 오판을 최소화해야 하지만 시험 전 선수 교육을 실시하여 경기 시 수준높은 선수들의 태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골프 레프리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레프리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협회 차원의 교육 방안이 요구된다. 레프리를 대상으로 하는 재교육 프로그램 중 스트레스 대처와 관리에 관한 교육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나타난 문제점과 보완해야 할 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골프 레프리 스트레스 요인은 타 스포츠와는 상이한 부분이 존재함을 도출하였다. 또한 골프 레프리에 대한 스트레스 요인으로 단일 종목에 한하여 연구 되어진 만큼 타 스포츠 종목의 심판들에게 적용하는 것은 종목의 특성상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이 연구결과를 활용한 다양한 스포츠 분야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심판 스트레스에 대한 보다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승우, 김영재(2019). 중·고등학교 골프선수와 후원자의 상호작용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과학회지*, 28(1), 163-175.
- 권기남, 권기식, 이정래(2011). 축구심판들의 스포츠 불법타협 제안유형과 저항방식.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24(2), 217-234.
- 권기범(2018). [화씨백: 김용준 프로의 골프볼 이야기] 플레이 속도 어떻게 낼 것인가. *세계일보 대한체육회*(1993). 경기종목소개/골프: 심판없는 양식의 신사경기. *SPORTS KOREA*, 293(0), 46-53.



- 박인경, 지정현, 박승하(2014). 럭비 심판의 숙련성에 따른 시각탐색과 의사결정의 차이.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25, 13-27.
- 박지연, 이숙향, 김남희(2013). *질적연구 시작부터 완성까지*. 서울: 학지사.
- 박해용(2003). 한국 축구 심판들의 판정실책 원인분석.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14, 127-138.
- 안창규(2017). 태권도 심판의 심판직무스트레스가 직업전문성과 사회적 인정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과학회지*, 26(2), 511-520.
- 오세숙, 김중순, 설수영(2012). 유도심판 스트레스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과학회지*, 21(2), 255-265.
- 유진, 박해용(2001). 스포츠심판 스트레스원인 요인분석.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12(1), 181-193.
- 이승훈, 이현우, 오상훈(2014). 골프 부정행위에 대한 청소년 선수들의 의식수준 분석. *한국골프학회지*, 8(4), 81-90.
- 이영란, 정진오(2011). 댄스스포츠심판의 스트레스 원인 탐색. *한국리듬운동학회지*, 4(1), 29-53.
- 손원일, 황승현, 송용관(2018). 심판판정 효능감 한국어 척도 타당도 검증. *한국체육과학회지*, 27(1), 1207-1217.
- 석혁기, 남정훈(2018). 골프선수의 심리적 강인성 탐색 및 척도개발. *한국골프학회지*, 12(1), 27-50.
- 신준수, 윤희기(2017). 아마추어 골프선수의 스포츠맨십과 골프 경기력의 영향관계: 성별의 집단간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체육과학회지*, 26(2), 751-772.
- 장연환, 박정근(2016). 한국 축구심판제도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코칭능력개발지*, 18(2), 55-65.
- 장재훈, 허선(2014). GPS를 활용한 축구심판들의 이동거리·시간 및 스피드 분석. *한국체육과학회지*, 23(2), 1433-1441.
- 최봉암(2017). 골프선수의 스포츠심리기술과 경기력에 미치는 정서기능의 기여도. *한국골프학회지*, 11(4), 141-155.
- 한경임, 윤대현(2009). 체조심판의 스트레스 요인 및 대처방식 척도 개발. *한국체육과학회지*, 48(5), 159-171.
- 한국스포츠개발원(2017). *상임심판제도 운영 평가 연구*.
- 허진영(2016). 농구 심판의 부담감,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인과관계: 성취동기의 조절된 매개, 매개된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체육학회지*, 66, 259-268.
- 황재욱, 김성훈, 송원익(2015). 대학 골프선수들의 스트레스 대처 척도개발. *한국체육과학회지*, 24(5), 699-712.
- 황재욱, 육동원, 김성훈, 권승민, 신정택(2013). 대학 골프 선수들의 스트레스에 관한 척도 개발. *한국체육과학회지*, 22(3), 599-613.
- Houssein, M., Lopes, P., Fagnoni, B., Ahmaid, S., Yonis, S., & Leprêtre, P. (2016). The new FIFA World Cup's challenge for referee decision making? *Journal of Athletic Training*, 51(3), 264-266.
- MacMahon, C., & Ste-Marie, D. (2002). Decision-making by experienced rugby referees: use of perceptual information and episodic memory. *Perceptual and Motor Skills*, 95(2), 570-572.
- Myers, N. D., Feltz, D. L., Guillen, F., & Dithurbide, L. (2012). Development of, and initial validity evidence for, the Referee Self Efficacy Scale: A Multistudy report. *Journal of Sport and Exercise Psychology*, 34, 737-765.
- Rainey, D., & Winterich, D. (1995). Magnitude of stress reported by basketball referees. *Perceptual and Motor Skills*, 81, 1241-1242.
- Souchon, N., Coulomb-Cabagno, G., Tractlet, A.,

& Rasclé, O. (2004). Referees' decision making in handball and transgressive behaviors: Influence of stereotypes about gender of players? *Sex Roles*, *51*(7), 445-453.

Tuero, C., Tabernero, B., Marquez, S., & Guillen, F. (2002). Análisis de los factores que influyen en la práctica del arbitraje [Analysis of the factors affecting the practice of refereeing]. *SCAPE*, *1*(1), 7-16.